뉴스홈 | 최신기사

사이버공간도 가을야구 축제 분위기

송고시간 | 2008-10-14 07:01











조성흠기자

<사이버공간도 가을야구 축제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조성홈 기자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야구게임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포털 넷마블의 CJ인터넷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단독으로 2008년 프로야구 포스 트시즌 스폰서 계약을 맺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넷마블에서 서비스중인 야구게임 '마구마구'는 KBO와 함께 포스트시즌 홍보 동영상을 공동 제작했으며, 경 기 중 클리닝 타임을 '마구마구 클리닝 타임'으로 명명해 다양한 경품과 응원도구를 나눠줬다.

또한 관람객에게 '마구마구' 게임 쿠폰을 나눠주고 홍보 부스에 서 타격 및 투구 게임을 열었다. 이밖에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대형 화면을 경기장 밖에 설치해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마구마구'도 게임 접속자 수가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고, 게임 아이템 판매 또한 급증하 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J인터넷은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를 맞아서도 두산베어스, SK와이번스와 다양한 공동 프로모션을 벌일 계획이다.

모바일게임업체 게임빌 또한 지난달말 포스트시즌 특수를 겨냥해 인기 야구게임 시리즈의 최신작 '2009 프로야구'를 선보였다.

'2009 프로야구'는 지난 1일 일일 다운로드 건수가 4만건을 넘기면서 자사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출시 반달 만에 총 25 만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올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전작인 '2008 프로야구'가 지난해 비슷한 기간 기록했던 수치에 비해 2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서도 신작이 전작의 기록 135만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게임빌은 기대했다.

이밖에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포털 피망에서 서비스중인 '슬러거' 역시 최근 포스트시즌이 개막하면서 일일 평균 방문 자수가 평소에 비해 15%, 신규 가입자가 20% 상당 증가했으며, 아이템 판매량 역시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14 07:01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뜫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상갑자...美, 꺼텼넌 무기: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런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Ö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nnews